

공공임대 1년 이상 대기자 3.8만명...지역·유형별 온도차 극명

민주당 박상혁 의원 LH 입주대기현황 자료분석 전국 7만7928명 대기 중...장기 대기 3만7720명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고도 입주하지 못한 대기자가 7만7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실제 입주하기까지 최장 13년3개월 이상 대기한 예비자도 있어 한쪽에 쏠린 임대주택 수요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7만7928명이었다.

주택유형별로 따져보면 전국 행복주택 대기자는 8078명, 국민임대는 4만3384명, 영구임대는 2만646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1년 이상 입주를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는 행복주택이 2903명, 국민임대가 1만3399명, 영구임대가 2만1418명으로 총 3만7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대기자 수가 3만3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6360명), 광주(4435명), 대구(43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 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행복주택이 3개월, 국민임대가 7.3개월, 영구임대가 6.3개월이었다.

주택유형별로 평균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은 서울(4.7개월),

국민임대는 제주(19.8개월), 영구임대는 광주(17.6개월)이 각각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약한 예비자들 중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가장 대기기간을 따로 조사해본 결과, 10년 가까이 입주를 기다린 사례가 속출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입주까지 159.4개월을 기다린 사례가 나왔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118.3개월을 대기한 예비 입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년수로 환산해 보면 각각 13년 3개월, 9년 9개월에 달한다.

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가장 대기기간은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왔다. 경기지역에서 국민임대에 입주하기까지 기다린 가장 긴 기간은 124.5개월(10.4년)이었으며, 행복주택 역시 62개월(5.2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LH는 "인천의 경우 희망단지 예비자 상태에서 다른 영구임대단지에 장기거주한 후 지난해 12월 희망당지에 입주

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소재 대상단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입주수요가 높은 인기 단지로, 다른 주택에 거주한 후 올해 6월 입주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며 "1416가구 규모인 해당 단지의 지난 1년간 퇴거건수는 29건이었는데 반해 대상자의 입주순번은 533번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황은 최근 전국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부 단지가 공실 상태로 장기간 비워져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다.

LH 관계자는 "같은 임대주택도 서울 수서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경기도 파주 등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파트먼트로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들은 대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택지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 "영구임대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50년이고 국민임대도 30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가가 발생이 안 되기도 한다"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기다리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다. 이 경우 LH에 통지를 해주어야 대기 목록에서 지울 수 있는데 막상 순서가 되면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로 수요가 높은 지역과 단지별 대기현황을 제대로 분석한 뒤 대기자명부 통합 등을 통해 대기기간 및 대기자수 감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기자명부 통합 등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전기차 성능 더 높인다”...한국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올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국내 출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사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전부터 전용 타이어 개발에 집중해왔는데 올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를 국내에 출시하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유럽에서 출시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통해 세계 최초로 최적의 전기차 성능을 발휘하는 전용 타이어 풀라인업을 선보였다. 기존 상품을 단순히 개선한 정도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을 위해 작심하고 만든 전기차 전용 브랜드

다. 이 아이온은 이달 국내에서도 출시했다. ▲아이온 에보 AS ▲아이온 에보 AS SUV와 겨울용 ▲아이온 윈터 ▲아이온 윈터 SUV 등 4개 상품으로 총 20개 규격을 내놨다.

내년에는 여름용 상품인 ▲아이온 에보 ▲아이온 에보 SUV도 따로 선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름용(Summer), 겨울용(Winter), 사계절용(All-season) 타이어를 포함해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6가지 상품, 총 86개 규격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상품을 구비하게 된다.

실제부터 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전기차를

타적으로 연구 개발된 ‘아이온’은 순수 전기 스포츠카 등 고출력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구현하며 한국타이어 특유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을 널리 알릴 전망이다.

특히 고출력 전기차의 특정 성능을 끌어올리면 다른 성능은 떨어지게 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극복한 ‘한국 에볼루션 기술’을 적용했다. 전기차의 낮은 회전 저항, 저소음, 고하중 지지, 빠른 응답성과 높은 토크 대응 같은 특성에 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 블록 내부에서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3D 사이프(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 기술을 반영해 타이어 미끄러짐 현상을 최소화했다. 타이어 측면 강성을 높이는 구조인 ‘EV 컨투어 기술’은 무거운 전기차의 하중을 견디면서도 핸들링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다. 낮은 회전저항 구조 및 가류 기술을 통해 고속주행 시 항속 거리를 확보하고 연비 효율성도 높였다.

최신 고기능성 폴리머, 친환경 소재 및 고그립 부어제를 적용해 실리카 함량을 높인 ‘차세대 소재 컴파운드’로 전기차의 그립 능력과 마일리지를 향상했다. 소음 저감 기술인 ‘사운드 업저버 테크놀로지’를 통해 주행 중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 소음도 억제했다.

이슬비기자

상반기 카드사용 3조 돌파...12.4% ↑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올 상반기 카드이용액이 일평균 3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PC를 통한 비대면 결제도 9.6% 증가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중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8.4%) 보다 증가폭도 확대됐다.

1~6월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은 각 13.1%, 9.0% 늘었다.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년동기보다 4.3%, 3.9% 늘어난 영향이다.

선불카드 이용규모는 78.1% 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불카드로 지급하면서 선불카드 이용 규모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나 PC 등을 통한 비대면결제 이용규모도 일평균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대면결제도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했다.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 비중은 상반기 중 41.4%를 기록했다. 비대면결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40%를 넘고 있다.

접근 기기별로 보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결제 규모는 5.9% 증가하고,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도 12.6% 증가했다.

한은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비대면 결제 뿐 아니라 대면결제의 경우에도 QR코드 리더기 등 결제단말기에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기기를 접촉하는 결제방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가운데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지난해 상반기(63.0%)와 하반기(65.0%)보다 다소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상반기 여행 업종의 카드 이용액이 늘어났다. 1~6월중 개인 신용카드의 소비 유형별 이용 규모를 보면 여행(58.4%), 음식점(20.0%), 오락·문화(17.4%), 전자상거래(16.8%)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8.6), 가구·가전(-6.1%) 이용 규모는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제주 지역이 18.7% 늘어나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이름·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줄었다. 자기앞수표 이용은 5만원 지폐 이용 확대 등으로 9.7%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고 전자어음, 당좌수표 등을 중심으로 어음결제가 7.2% 감소한 영향이다.

뉴시스

온가족 안심 사용 ‘그린핑거 핸드케어’...보습·향 강화



3종의 향과 보습력으로 차별화

유한킴벌리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는 보습 효과와 기분 좋은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온 가족용 퍼퓸 핸드케어 ‘그린핑거 포레스트 핸드케어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핸드워시와 핸드크림 각 3종으로 출시된다. 달콤한 너츠향, 상큼한 베베나향, 싱그러운 플로럴향까지 취향에 맞

게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 숲 동백나무와 잣나무에서 추출한 식물 유래성분이 함유된 ‘퓨어 포레스트 콤플렉스’가 적용됐다. 환경절에 건조하고 지치기 쉬운 피부에 충분한 수분감을 제공한다.

피부 자극과 사용 후 피부보습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 향(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성분 25종)이 첨가되지 않았다.

유유니기자

코지마, 온·오프라인서 가을맞이 프로모션

다양한 채널 통해 혜택 제공

종합 웰스케어 전문 기업 코지마가 ‘가을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브랜드 직영점인 코지마 갤러리 논현점과 마포점에서는 텐텐텐(10·10·10)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매 주말 동안(총 10일간)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데전드 시그니처’를 비롯한 안마의자 10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은품은 손마사지기 블랙베리, 눈마사지기 아이오, 목주주마 마사지기 글로우, 목어깨마사지기 트루리 중 선택

가능하다.

코지마 갤러리 논현점에서는 렌탈 전문기업 청호나이스와 협업해 콜라보 상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안마의자와 청호나이스 정수기(혹은 공기정정기) 동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TV 홈쇼핑 방송도 진행한다. 28일 오전 8시 15분 롯데홈쇼핑을 통해 스텔형 발마사지기 ‘코지스툴’을 판매한다. 모바일 앱 10% 할인 쿠폰과 5% 카드 청구할인(KB국민)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행사들을 준비했다. 오는 29일 오후 8시 네이버 쇼플라이브에서는



코지마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힛트’를 역대 최저가에 판매한다. 또 카카오톡 쇼핑하기 톡딜에서는 28일까지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킴피체어’를 51%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두 행사 모두 전용 카셋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원 첫 돌파

지난해 108.3조원 견어...2017년보다 49.1조 ↑ 양도소득세 36조7000억원...5년 새 2.4배 증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과 비교하면 1.8배 증가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5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8배(49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이었다. 2017년(23조6000억원)보다는 2.4배(34조2000억원) 늘어났다. 양도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2.4배(21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4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는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3.0배(4조6000억원), 증여세는 4조4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1.8배(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이 견했다. 2017년 35조7000억원보다 1.4배(14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취득세 33조7000억원, 재산세 15조5000억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000억원 등이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5년 전보다 각각 10조2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흑한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